

‘무증상 입국’에 1·2차 방어막 구멍... 보건당국 초비상

확진자 4명 중 2명 무증상 입국
지역사회 복귀 후 발열 등 증상

네 번째 환자, 병원 2차례 방문
입국 7일째 국가지정병원 격리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 4명 중 2명이 무증상 입국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증상 나타난 후 지역사회 활동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 4명 중 2명은 입국 당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어 검역망에 걸리지 않았다.

앞서 발생한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는 입국 당시 경미한 증상이 있어 공항에서 각각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세 번째 환자와 네 번째 환자는 입국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지역사회로 복귀했다가 이후 발열 등이 나타났다. 특히 네 번째 환자는 지난 20일 입국 후 21일 감기, 25일 고열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다.

네 번째 환자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된 건 26일이다. 20일 입국 후 7일째, 21일 감기 증상이 나타난 후 6일째다.

증상이 발현된 후 지역사회에 머무는 데 따라 접촉자들에게 대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 보건당국은 이 기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해 능동감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네 번째 환자가 증상이 발현된 후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27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앞에 의심환자를 태우고 온 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암뉴스

“검역이 입국 당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기 위한 1차 방어막이라면 2차 방어막으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 시스템 등을 만들어 둔 것”이라며 “1, 2차 방어막이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번째 환자의 2차 방어막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증상이 없는 잠복기 환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불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요양기관에 확산방지 협조 당부

국내 네 번째 확진자는 감기 증세로 방문한 국내 의료기관도 조기차단하지 못했다. 이는 전국 요양기관에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자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네 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55세 한국인 남성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후 20일 입국했다.

기침이나 열 등 증상이 없어서 입국 때 공항 검역망에서 걸리지 않았다. 이어 그는 다음날인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이때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가 정상 작동했거나 환자가 우한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면 이 환자는 초기에 격리 조치돼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그만큼 줄었을 수 있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입국자 명단을 활용해 지난 10일부터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 우한 등 중국 방문자는 어느 병원을 가든지 팝업 창에 감염지역 방문 환자라는 사실이 뜨고, 환자 접수와 진료 단계에서 체크된다. 우한 폐렴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보건소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2차 방어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네 번째 환자는 25일에 고열(38도)과 근육통이 생겨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고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이렇게 일선 의료기관을 통한 2차 방어선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자 심평원은 모든 요양기관에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전국 요양기관이 DUR 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을 설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중국행 항공권 취소 줄이어 업계, 환불수수료 면제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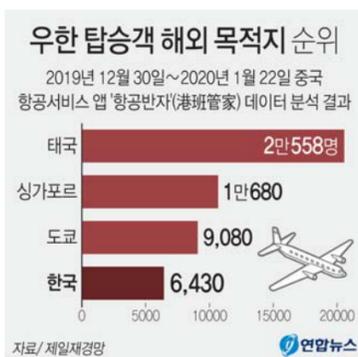
대한항공·아시아나, 면제 전면 확대
제주항공·에어부산 등 LCC도 동참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줄기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으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커지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부터 3월 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줄기로 했다. 또한 에어부산은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가운데 오는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은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도 2월 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일단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LCC인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2월 29일까지의 항공권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히 LCC 입장에서는 가뜰이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병원, 면회 ‘환자당 1인’ 등 방역 총력전

의료계, 대형병원들 비상대책회의
중 후베이성 입국자 전수조사 주장

국내에도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병원들이 입원환자의 면회를 ‘환자당 1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메르스 때나 볼 수 있었던 병원 내 선별진료소도 다시 등장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대형 병원들은 설 연휴임에도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한 폐렴 확산 방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감염예방 차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면회를 출입증을 보유한 보호자 1인으로 제한했다.

또 병원 곳곳에 열 감지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전체 출입객을 검사하는 등 내부 출입감시체계도 강화했다. 카메라는 서울대병원 본관, 어린이병원, 암병원 건물 입구에 설치됐다. 카메라에서 이상반응이 포착되면 비상대기중인 감염관리센터가 여행이력을 포함한 건강문진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의심환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별 진료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외래와 입원, 응급 진료 환자의 중국 방문력을 전수 조사한다. 이 병원도 입원환자 면회를 지난 23일부터 보호자 1인으로 전면 제한하고 있다.

입원환자 면회 제한은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거의 모든 대학병원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 3번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인 명지병원 의료진이 중국 폐렴 확진 환자가 입원한 격리음압병실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케어하고 있다. /명지병원

국내 3번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인 명지병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부터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선별진료소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 대비한 병원 내 대응책도 마련했다.

명지병원 이양준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내부와 외부의 소통이 성공적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잘 대응할 수 있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베이성 입국자 전수조사’ 힘 실리나 최근 2~3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한 폐렴’ 증상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증상 상태에서 프리패스로 입국장 방역망을 통과한 중국 우한 거주 방문자가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네 번째 환자가 무증상 입국 후 국내에서 폐렴 확진을 받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짧게는 2~7일, 길게는 14일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스나 메르스와 유사하다.

잠복기가 최대 14일이어서 무증상 상태에서 국내 들어오면 공항 검역에서 걸러낼 수 없다.

문제는 입국 후 증상이 나타난 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를 활보하거나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한 까닭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차단하고자 최근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2~3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으로부터 입국한 입국자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의 소재와 증상 발생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세경 기자